

● 동양정밀가스켓, QS 9000 및 ISO 9001 인증 획득

자동차 실린더 헤드 가스켓 및 패킹류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주) 동양정밀가스켓이 지난 10월 2일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BA)의 인증기관인 KOTRIC-QA로부터 QS 9000 및 ISO 9000 인증을 획득하였다.

동양정밀가스켓은 1982년 8월 공업진흥청으로부터 KS 표시 허가를 획득하였고 1999년 6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자동차용 설계·개발연구분야의 기술연구소를 설립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동양정밀은 제품의 다양화, 고급화, 선진기술도입, 도입소재 국산화, 기능성특수소재 자체생산, 고품질의 고무 가스켓 생산, 신기술 특허출원, 비석면 소재개발 등 차별화된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제조·판매 및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해외 시장개척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GIT, 자동차 종합진단기 국내 첫 독자개발

자동차 종합진단기전문 벤처기업 GIT는 지난해 10월 9일 순수독자기술로 완성한 '오토마스타'를 출시하였다. 오토마스타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튜업기, 오실로스코프, 멀티미터, 휴대형진단기(스캐

너)등 4개 장비를 하나로 통합한 전자제어시스템 고장진단기로 여기에 고장부위를 자체 진단한 뒤 컴퓨터 화면에 한글로 정비절차와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는 진단도우미기능이 추가되어 비숙련정비사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자체기술로 개발함으로써 기능이 외국제품보다 뛰어나면서 가격은 절반 이하인 1,700만원대로 낮출수 있게 되었다. GIT는 금년에 500대를 보급하고 3~5년안에 오토마스타를 전국 2만개 정비업소에 기본장비화한다는 목표로 인터넷망을 통한 원격정비서비스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 대우기전, 회사명 한국델파이로 변경

대우기전은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명을 한국델파이(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명변경과 함께 대우기전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델파이가 자동 승계하게 되었다. 대우기전은 대우자동차와 미국 델파이오토모티브간 합작회사였으나 대우차가 지분을 델파이측에 넘기기로 합의함에 따라 델파이가 75%정도의 대우기전 지분을 확보할 전망이다.

● 서진산업, 미국 타워사에서 4천만달러 외자유치  
자동차 차체메이커인 서진산업이

세계적인 자동차부품 기업인 미국 타워사로부터 4천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합작조인식에서 타워사는 지분 49%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서진산업이 발행하는 지분 49%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서진산업이 발행하는 4천만달러여치의 신주를 인수키로 계약했다.

서진산업은 이번 자본유치로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차체 관련 신기술 도입을 통해 재도약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서진은 ▲ 프레스 관련 신기술인 하이드로릭 포밍기술 ▲ 용접 신기술인 테일러드 블랭킹 기술 ▲ 차체 설계기술 및 충돌시험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타워사로부터 이전 받게 된다.

서진은 또한 국내 자동차메이커를 통한 간접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타워사의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아시아 등 세계 시장으로 설비 및 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 현대정공,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사로 부상

현대정공이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애프터서비스용 부품 판매사업에 진출한다. 현대정공은 최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정비를 제외한 애프터서비스

용 부품판매부문 일체를 자산양수 인도 방식으로 인수, 금년 2월부터 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정공은 현대자동차 소그룹 내의 부품사업 일체를 전담하는 자동차부품 전문회사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현대정공은 이 사업에서 국내 물류센터 4개소를 비롯해 부품사업소, 부품센터, 부품판매소 등 전국 43곳과 해외 부품판매망, 1,300여 명의 종업원을 모두 흡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품을 직접 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대차 정비사업소에도 정비용 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현대정공은 매출 6,000억원대에 이르는 애프터서비스용 부품판매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모듈부품사업(1조1,000억원 규모)을 포함, 부품사업규모만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부품회사로 확고히 자리잡게 됐다.

●보쉬, 외국회사 최초로 산업훈장 수상

한국로버트보쉬기전이 제36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지난 89년 독일의 로버트보쉬가 100% 지분을 투자해 설립된 이 회사는 연간 10여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상호파견함으로써 첨단기술의 국내이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지역 내 부품업체로부터 연간 70억원의 원자재를 도입하

고 부품업체의 품질 및 기술지도를 통한 기술력 향상에도 기여했다. 이 회사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외국인 회사로선 처음으로 금탑산업훈장을 받게 됐다.

●한라공조, 차량용 에어컨 압축기 인도 수출

한라공조가 인도의 베어인디아와 총 5,000만달러 규모의 차량용 에어컨 압축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시작했다. 베어인디아는 인도의 자동차회사 델코모터가 개발한 1,400cc급 디젤엔진차인 인디카에 이 에어컨 압축기를 공급하게 된다.

한라공조는 인디카 장착용으로 연간 5만대씩 5년간 2,500만달러 상당의 에어컨 압축기를 납품하며 같은 규모로 5년간 추가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엠에스전자, 차전조등용 안정기 국산화

엠에스전자가 가스방전식 자동차 전조등(HID)의 핵심부품인 D2램프용 전자식안정기를 개발해 기술 표준원에서신기술(NT)로 인증을 받았다. 엠에스전자는 지난 5년간 2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엠에스전자는 안정기와 서치라이트 제품으로 미국 캔들파워사에서

이미 100만달러의 주문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쿠퍼사와 일본, 대만의 관련사와는 현재 공급협상중으로 금년 1,000만달러, 2001년에는 2,000만달러어치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대우자동차 신임 사장 인사

대우자동차(주)의 신임 사장에 대한 인사가 지난 1999년 12월 27일에 있었다. 국내 담당으로는 정주호(鄭周浩) 사장으로 인사가 있었으며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실업 런던지사장, 대우전자 국내영업본부장, (주)대우자판 사장을 거쳐 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지냈으며, 해외담당 김신정(金信政) 사장은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상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자동차 이사, 경영기획실 전무를 거쳐 인도 DMIL 법인대표 부사장을 지냈다.

이외에 대우자동차판매(주) 대표에는 박성학(朴性學) 사장이 발령났으며 박성학사장은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자동차의 캐나다와 미국의 현지법인 대표와 우리자동차판매(주) 사장을 거쳐 이번에 대우자동차 판매(주) 사장으로 발령받았다.

●새천년 첫차 「레조」, 대우차 롯데백화점과 연계, 7

## 일부터 열흘간 「레조 신차 관람회」 개최

대우자동차가 새천년에 처음으로 출시하는 미니밴 「레조」의 신차관람회를 국내 최초로 백화점과 함께 개최한다.

대우는 레조의 본격 출시를 계기로 올해 25만대 규모가 예상되는 전체 미니밴 시장(7인승, 9인승 포함)의 30% 이상, 14만대 규모가 예상되는 7인승 미니밴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다는 계획이다.

레조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부는 그늘진 쉼터”라는 뜻의 이태리어로, 도심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2.0 SOHC LPG SL, ▲2.0 SOHC LPG VL, ▲2.0 DOHC 가솔린 VG 등 3종류의 모델로 시판된다.

- 현대자동차 전년 대비 내수 70% 증가, 수출 창사 이래 최대

현대자동차는 '99년 한 해 동안 내수 57만 510대, 수출 70만 961대 등 모두 127만 1천 471대를 판매하여, 당초 125만대였던 판매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이는 '98년 대비 내수는 70.0%, 수출은 22.5% 신장된 것으로, 내수는 IMF 이전인 '97년 64만 5천 573대의 88%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경차와 소형차를 제외한 전차종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8개월 연속 1만대를 돌파하며 수위차종의 위치를 굳힌 EF쏘나타 등 중대형 승용차와 RV 및 상용차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수출은 북미시장의 호황과 지역밀착경영의 성공 등으로 전년대비 22.5% 증가한 70만 961대를 기록, 창사 이래 최고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

(강우 편집위원 : [wkang@ns.katech.re.kr](mailto:wkang@ns.katech.re.kr))